

한국적 복식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색동의 색채분석

강 병 회 · 조 희 래 · 김 영 인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Color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Striped Clothes(Saikdong) for the Dvelopment of Korean Fashion Design

Byung Hee Kang · Hee Lae Cho · Young In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8. 1. 19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Saikdong by the standardized color system and to applicate it's color characteristics to fashion design.

25 traditional costumes made with Saikdong were selected from four museums in Seoul. The colors were measured using CE 310 and analyzed by Munsell HV/C.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1. The frequently used hues in Saikdong are warm colors such as red, orange, yellow. Except purplish blue, cool colors show low usage ratio.
2. The tones of medium lightness and saturation are most frequent in Saikdong colors.
3.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combination are the contrast of hue and the similarity in tones. This makes the saikdong splendid and harmonious.
4. Based on this anylized characteristics of Saikdong color combination, fashion designs were developed by computer simulations.

Key words: Korean Design, Saikdong, color, fashion design: 한국적 디자인, 색동, 색채, 복식디자인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미래사회에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전통에 근거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한국적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의 전통적 색채나 조형의식을 파악하고자하는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색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색채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직물로서 삼국시대¹⁾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 1) 색동의 형식은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나타났으며, 고구려 시대 수산리고분 서벽의 귀인이 착용 하고있는 치마에서 가장 먼저 보인다. (김원용, 「벽화-한국미술전집 4」, 서울: 동화출판공사, 1974, p. 29 in 금기숙에서 재인용)

*본 논문은 199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색동을 응용한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의 후속연구입니다.

국민의 생활속에 전수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명절과 같이 경사스러운 날이나 혼례와 같은 예를 올리는 날, 그리고 무속신앙을 통해 액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날에는 색동옷을 착용하므로써 복식을 통하여 한국인이 지닌 독특한 미의식의 한 부분을 잘 드러내어왔다. 이와 같이 색동은 우리 민족의 여러 문화적 전통중에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한국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소재중의 하나이다.

현대의 디자인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동의 예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생활공예분야에서 응용되어 오고 있는 색동은 주로 토산생선의 인형이나 손지갑, 포장지 등에서 볼 수 있는 대량생산된 키치(kitsch)유형의 복제품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강렬한 색조와 금박장식으로 키치적인 화려함을 더하여 명절에서 느껴지는 즐거운 기분을 현실에 재현하고 있다.

시각디자인 분야에서는 색동을 양식화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예는 국제행사시 한국을 알리는 포스터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즉 색동의 색이나 색동저고리 등을 시각적으로 단순화시킨 것이 포스터나 행사의 마스코트에 사용되는데 이와같은 양식화의 의도는 색동의 색채를 통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현대복식디자인에 사용된 색동은 탈색동화에 의한 색동의 사용 예를 나타내고 있다. 탈색동화에 의한 디자인 전개는 색동의 조형요소를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것으로 여러분야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색동의 색이나 색너비등의 변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색동 디자인의 대표적인 예로써 아시아나 항공사는 기업이미지 통합(CI)의 주제로 색동을 선택하여 승무원의 복장에도 색동을 사용하고 있다²⁾. 또한 복식디자이너 이영희는 '95년 춘하 파리 여성복 컬렉션에서 색동의 색조를 유행경향에 부합되는 파스텔톤으로 변형시킨 원피스를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색동은 한국 고유의 색채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줄무늬로서 여러 디자인분야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알리기위한 디자인 소재로 선정되어 응용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지닌 탁월한 색채감성을 표현하는 색

동의 아름다움을 현대감각에 부응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색동에 사용된 색채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색동에 반영된 전통적 색채관념 및 색채사용을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선행연구³⁾에서는 현대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색동 색채자료의 분석을 위해 17벌의 색동복식을 대상으로 팬톤색표를 활용한 시각측색을 실시하여 일차적으로 색동색채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섬유패션업계에서 많이 활용하는 팬톤색표를 사용하여 색동의 색채를 실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색동에 내포된 내용적인 측면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후속연구는 표준화된 색채도구를 사용하여 색동색채를 분석하므로써 우리 전통색채를 현대의 미적 감성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색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색동의 여러 조형 요소중 특히 색채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표준화된 색채 전달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므로써 한국적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색동색채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대 복식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표 1>과 같이 국립민속박물관과 고려대학교 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복식중 조선시대(19세기말 조선후기)부터 현대(1950~80년대)에 이르기까지 색동이 사용된 25벌의 실물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색동복식은 착용맥락에 따라 색동저고리와 같이 명절에 착용된 것은 명절복(10벌)으로 부군대감옷 관복이나 무복 치마와 같이 무속의식에서 착용된 것은 무복(4벌)으로, 활옷이나 원삼, 당의와 같이 궁중예복이나 혼례복으로 착용된 것은 예복(11벌)으로 분류하여 그 착용맥락에 따른 색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색채는 1996년 7~8월 박물관에서 측색기(CE310)를 사용하여 실물측색한 면셀 HV/C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사대상 색동 복식의 사진 자료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2) 채수호, 국제항공사의 CIP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66, 1989

3) 조희래, 김영인, 색동을 응용한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1), 한국의류학회지, 20(5), 1996.

<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색동복식의 분류

| 구분 | 의복명 | 소장장소 | 유물번호 |
|-----|----------|----------|----------|
| 명절복 | 저고리(유아용) | 숙명여대박물관 | * |
| | 마고자(유아용) | 숙명여대박물관 | * |
| | 마고자(유아용) | 숙명여대박물관 | * |
| | 저고리 | 숙명여대박물관 | * |
| | 저고리(유아용) | 숙명여대박물관 | * |
| | 저고리 | 국립민속박물관 | 5310 |
| | 저고리 | 국립민속박물관 | 7420 |
| | 저고리 | 국립민속박물관 | 11731 |
| | 오방장 두루마기 | 이화여대박물관 | 5602-286 |
| | 까지 두루마기 | 이화여대박물관 | 5597-102 |
| 부복 | 무복 | 국립민속박물관 | 11650 |
| | 부군대감곳관복 | 국립민속박물관 | 8315 |
| | 치마 | 국립민속박물관 | 8415 |
| | 치마 | 국립민속박물관 | 8454 |
| 예복 | 당의 | 숙명여대박물관 | * |
| | 활옷 | 국립민속박물관 | 971 |
| | 원삼 | 국립민속박물관 | 7965 |
| | 금지녹원삼 | 이화여대박물관 | 5602-277 |
| | 녹원삼 | 이화여대박물관 | 5599-4 |
| | 원삼 | 이화여대박물관 | 5597-104 |
| | 원삼 | 고려대학교박물관 | 969 |
| | 활옷 | 고려대학교박물관 | 961 |
| | 원삼 | 국립민속박물관 | D-159 |
| | 활옷 | 고려대학교박물관 | 944 |
| 활옷 | 고려대학교박물관 | 943 | |

*유물번호 수정작업중

전통색의 연구영역안에서 색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음양오행색의 범주에서 색동의 색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통색의 현대적 사용방법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으므로 색동의 색채분석도 포괄적인 색영역을 포함하는 KS A 0011에서의 물체색의 색이름 구분에 의거하여 20개 색상군⁴⁾으로 나누어 색상과 명도, 채도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색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색동의 색배열을 분석하여 배색원리를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전의 관련 연구들에서 색동에 사용된 색상을 적,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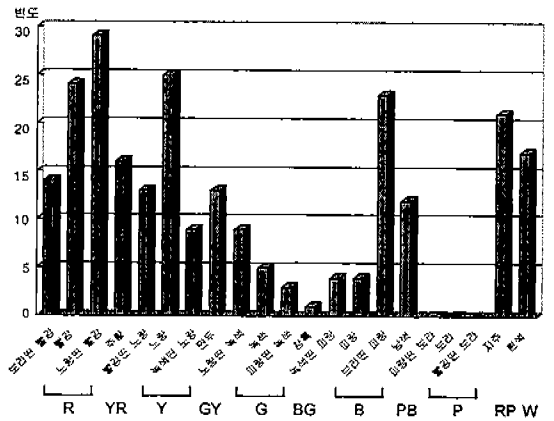
황, 백, 그리고 홍, 벽, 녹, 아황, 자의 오방색과 오간색으로 구분하였던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20색상군으로 색상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므로써 색동에 사용된 색상의 특성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였다. 반면에 시간에 따른 직물의 탈색이나 염료의 특성 또는 재질과 관련된 색채의 특성에서 오는 착색오차를 피하기 위하여 색채분석 자료를 단색보다는 색상군이나 색조의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II. 색동의 색채분석

1. 색상의 분석

1) 색동에 사용된 색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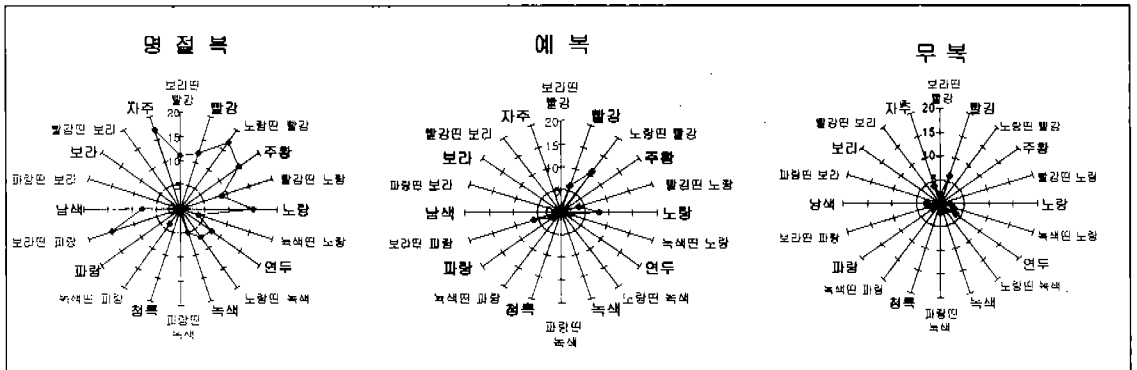
색동에 사용된 색상을 분석한 결과 총색상 수는 242 색이였으며, [그림 1]과 같이 전체적으로 노랑면 빨강



[그림 1] 색동의 색상분포

(12%), 노랑(10%), 빨강(10%), 보라면 파랑(10%) 그리고 자주(9%), 흰색(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라면 빨강에서 녹색면 노랑까지의 영역이 전체의 54%를 차지하여 난색계의 색상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4) 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 구분(1992)에 따르면 기본색은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나뉘어 유채색의 기본 색이름은 빨강(R), 주황(O: YR), 노랑(Y), 연두(L: BG), 녹색(G), 청록(C: BG), 파랑(B), 남색(V: PB), 보라(P), 자주(M: RP)로 이루어진다. 이중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는 다시 세분화하여 빨강은 보라면 빨강·빨강·노랑면 빨강, 노랑은 빨강면 노랑·노랑·녹색면 노랑, 녹색은 노랑면 녹색·녹색·파랑면 녹색, 파랑은 녹색면 파랑·파랑·보라면 파랑, 그리고 보라는 파랑면 보라·보라·빨강면 보라로 구분하였다.



[그림 2] 색동의 착용맥락별 색상분포(%)

수 있다. 또한 한색계의 색상에서는 보라면 파랑과 남색의 함이 15%로 나타났다. 자주는 9%, 녹색계열은 전체가 7%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색동에 사용된 색은 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자주, 흰색, 주황, 녹색의 순으로 사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조선시대 색채사용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었던 음양 오행설과 관련하여 색동이 적, 청, 황, 백의 오방색을 주로 사용하고, 여기에 홍, 벽, 녹, 아황, 자의 오간색을 첨가하였다⁵⁾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검정과 오방색에 해당되지 않는 보라계열은 색동의 색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세부적으로는 빨강에서는 노랑면 빨강이, 노랑에서는 노랑의 비율이 높으며, 파랑에서는 보라면 파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색동에 사용된 주된 색상의 세부적인 범주는 노랑면 빨강, 노랑, 보라면 파랑이다.

2) 착용맥락별 색상 분석

착용맥락별로 색동에 사용된 색상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명절복은 노랑면 빨강(11%), 자주(11%), 주황(10%), 노랑(10%), 보라면 파랑(10%)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자주에서 빨강을 거쳐 노랑에 이르는 색영역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반면 한색계에서는 보라면 파랑과 남색을 제외하고는 그 비율이 매우 낮거나 사용되지 않았다. 즉, 명절복의 색동에 사용된 색상은 대부분이 난색계로서 보라면 파랑계열과 배색되어 화려한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복에서는 노랑면 빨강(21%)과 빨강(12%)이 33%, 흰색(17%), 노랑(15%), 그외에 보라면 파랑(12%)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노랑면 녹색에서 녹색면 파랑, 파랑면 보라에서 자주의 색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예복의 색동에는 빨강, 노랑, 파랑의 삼색상과 흰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난색계의 사용영역이 넓다는 점에서 명절복과 유사하나 예복에서는 빨강, 노랑, 파랑의 색상대비의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복은 빨강(17%), 연두(11%), 자주(11%), 남색(10%), 녹색면 파랑(1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외의 색들은 비슷한 사용비율을 이루고 있다. 녹색계 색상의 비율은 전체의 11%로 다른 두 복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복종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파랑면 녹색과 청록도 사용되었다. 파랑에서 보라면 파랑, 남색의 비율은 2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녹색과 청색계열 색상의 사용이 많은 한편 다른 옷에서는 높은 출현도를 보인 노랑계열의 색상 사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색동에는 빨강, 노랑등 난색계의 색상이 주로 사용되어 화려하고 밝은 느낌을 주면서, 한색계의 색상과 대비를 이루어 활기찬 느낌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색상의 특성은 특히 명절복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명절복은 가장 많은 수의 색상, 가장 다양한 영역의 색상을 사용하고, 난색계를 주로 사용하여 명절의 즐겁고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는 색동이 주로 아이들 옷이나 의례복, 축제복 혹은 제복의 용도로 사용되어 기쁨의 의미를 전달하

5) 박상의, 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p. 26.

는 매체였음을 상기할 때 이와같은 색사용의 적합성을 찾아볼 수있다.

예복에서는 빨강과 노랑, 파랑, 흰색의 오정색을 중심으로한 관습적인 색채사용으로 색상의 사용이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을 알 수있다. 이는 예복이 혼례등 관례적인 용도를 가지므로 오정색을 사용하고 길에 지수나 금박등 부가적인 장식으로 수복을 기원하는 상징과 화려함을 첨가하였으므로 다채로운 색상의 역할이 덜 중요했다고 볼 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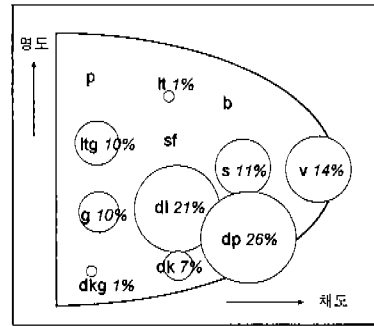
무복의 경우 색동옷의 길에 사용된 색상은 주로 연두, 녹색계열이며 소매의 색동에 사용된 빨강, 연두, 자주, 청색이 빨강과 녹색, 노랑과 청색 등 보색에 가까운 대비를 이루도록 배열되어 강하면서도 생생한 느낌이 전달되는 역동적인 화려함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이미지는 무당의 주술적 능력을 가시화해주고⁶⁾, 더욱 중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무복에서 녹색계나 청색계 색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푸른옷이 주로 천한 계층의 사람이 착용하는 옷으로 무녀들이 푸른계열의상을 주로 입었던 점⁷⁾과 또한 녹색이 불교에서는 5불

의 신색중 하나로서⁸⁾ 토속신앙에 이러한 불교의 영향이 수용되어 녹색의 사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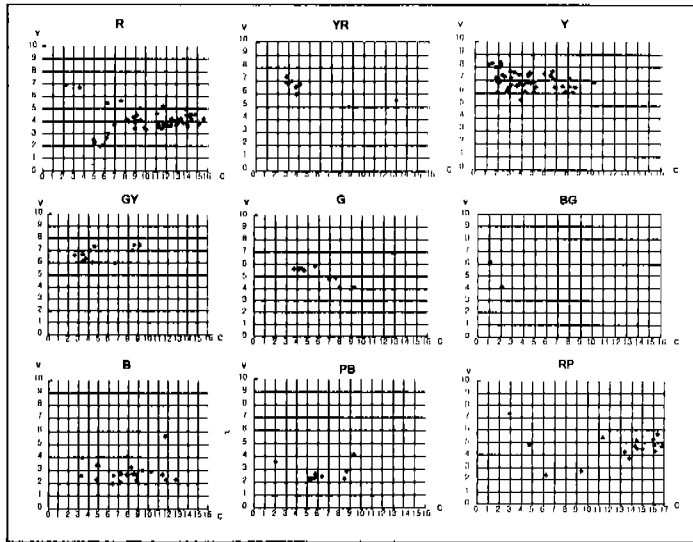
2. 색조의 분석

2) 색동에 사용된 색채의 색조 분석

색동에 사용된 색채의 색조는 KS 색조분류⁹⁾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dp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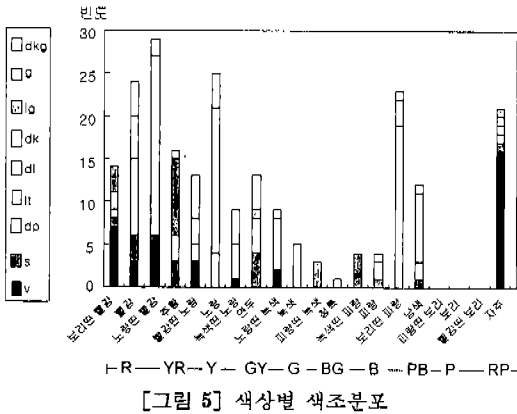


[그림 3] 색동의 색조분포



[그림 4] 색동색채의 색상별 명도·채도 분포

6) 김기숙,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p. 80, 1994.
 7) 김지연, 한국인의 녹색상징의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8) 김명환, 「미술사전」, 서울: 도서출판 승례문, p. 404, 1991.
 9) p(pale: 아주연한), ltg(lightgreyish: 밝은 회), g(greyish: 회), dkg(dark greyish: 어두운 회), lt(light: 연한), sf(soft: 부드러운), dl(dull: 칙칙한), dk(dark: 어두운), b(bright: 밝은), s(strong), dp(deep: 짙은), v(vivid: 해맑은): 본 연구에서는 dl 영역을 sf와 dl로 세분하였으며, s(strong)은 해당수식어가 없는 원색조이다.



dl 21%, v 14%, s 11%, g와 ltg 10%, dk 7%의 순으로 나타나 중명도의 채도가 비교적 높은 색조에 해당하는 색채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dp과 dl이 많아 중간정도의 명도와 채도를 가진 절거나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달하는 색조의 사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색상별로 색조를 분석한 결과 [그림 4], [그림 5]와 같이, 보라면 빨강은 v톤이 가장 많고, 빨강은 v, s, dp, dl, dk의 색조가 사용되었으며 노랑면 빨강은 dp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빨강면 노랑은 g, s, dl순으로, 노랑은 주로 dl이 사용되었고, 그외 dp, g도 나타났다. 녹색면 노랑은 dl, g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계열에서는 dp, dl이 가장 많았으며 청색계열의 경우, 보라면 파랑은 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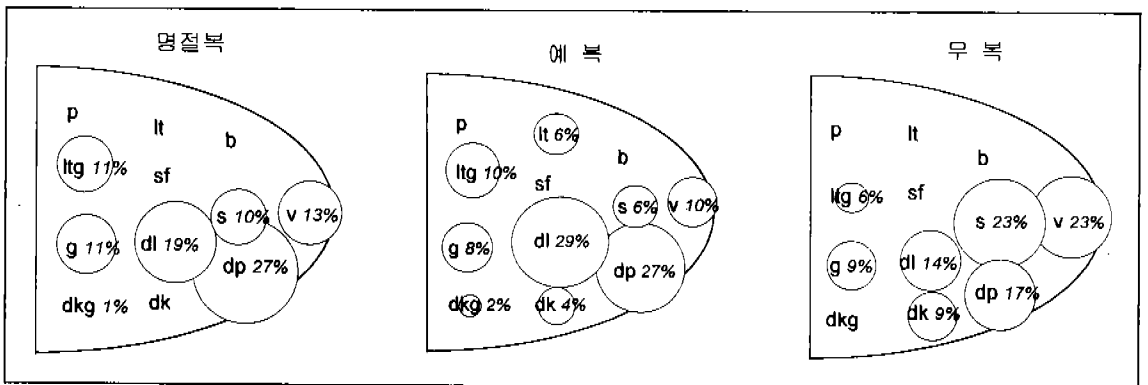
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남색은 dk가 가장 많았고, 그외 dp, dkg도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색동에 사용된 색채는 각 색상에 따라 색조에 차이를 나타내어 자주와 빨강계열은 주로 선명한 색조가, 노랑계열은 명도와 채도가 다소 낮은 색조, 그리고 녹색계는 칙칙하고 차분한 색조가 많으며, 청색계는 다른 색상계열에 비해 어두운 색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적색은 대체적으로 선명하고 강렬하며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조였으며, 황색은 수수한 색조로 온화하고 평온함이 있는 차분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한편 녹색은 주로 차분하고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조였으며, 청색은 어두운 색조로써 깊이있고, 안정되며 다소 고상한 이미지를 나타내 주는 색조가 사용되었다¹⁰⁾.

결과적으로 색동에서는 pale, bright, soft의 색조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착용맥락별 색조 분석

착용맥락에 따라 색조를 분석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명절복의 색조는 dp(27%), dl(19%), v(13%), g와 ltg(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복은 명절복과 유사한 색조분포를 이루어 dl(29%), dp(27%)이 가장 많았으며, 그외에 v(10%), ltg(10%), 그리고 g(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색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무복은 v(23%), s(23%), dp(17%)과 dl(14%)의 순으로 고채도의 색조가 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색동의 착용맥락별 색조분포

10) 小林重順, 「Color image scale」, 동경: 集談社, 1990, p. 9

박상호, 「색채계획-건축, 인테리어의 색채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효성, 1993, p. 89

이러한 색조분포의 특성을 앞서 살펴본 색상의 특성과 관련지어볼 때, 명절복과 예복의 경우 다양한 색상과 삼원색에 가까운 색상이 사용되는 등 색상의 배합이 자칫 현란해질 수 있으나 색조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므로써 색동의 전체적인 느낌이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반해 무복은 색상의 조합이나 색조의 사용이 강하고 선명한 색채 중심으로 되어있어 원시적인 주술적 힘을 표현하고 전달한다고 보겠다.

3. 배색의 분석.

색동은 사용된 색채의 독특한 배열형식에 의하여 한국적인 색채감성을 전달한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색동의 색채배열은 반복된 단위의 색채리듬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색동의 색배열 특징을 배색의 원리로 파악하므로써 색동이 나타내는 독특한 색채리듬과 색채이미지의 구성형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색동의 색채배열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5, 6, 7의 다색배열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색동의 색채배열의 형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색배열 관계를 색상조화의 기본이 되는 2색조화로 나누어 한 색상과 그 오른쪽 색상의 색배열관계를 분석하였다. 색상의 배색유형은 색상환에서 배색되는 두색의 거리에 의해 동일배색(H0)부터, 유사배색(H1), 부조화배색(H2), 이색배색(H3), 근점보색배색(H4), 그리고 색상환에서 마주보는 색끼리의 보색배색(H5)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한 색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상관없이 거리가 같을 경우 동일한 배색유형으로 보았다. 색조는 색조맵에서의 위치에 따라 동일색조의 경우 T00, 명도차만 나는 배색의 경우에는 T10(명도1단계차: 예-sf와 dl), T20(명도2단계차), 채도차만 나는 배색은 T01(채도 1단계차), T02(채도2단계차), T03(채도 3단계차), 그리고 명도·채도 모두 차이가 나는배색의 경우는 T11(명도, 채도 각 1단계), T21(명도2, 채도1), T12(명도1, 채도2), T22(명도2, 채도2), T13(명도1, 채도3)로 구분하였다.

1) 색동의 색배열 분석

색동을 구성하는 색배열을 분석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색상배색의 측면에서는 이색배색 H3(27%), 부조화배색 H2(2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점보색배색 H4(18%), 보색배색 H5(14%), 유사배색 H1

(14%), 동일배색 H0(4%)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즉 색상관계가 불명료한 부조화, 이색배색을 이루는 경우가 전체의 50%로 색상차가 비교적 큰 색배열을 이루고 있다. 색채 대비가 매우 강한 근점보색이나 보색의 배색보다는 보색에서 빗겨난 중간차색, 색상환에서 삼등분에 대응하는 색끼리의 삼등분배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색동의 색배열은 인접한 동일, 유사색상과의 배색보다는 대조 관계를 이루어 색상의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는 배색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극단적인 반대보색보다는 근점보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강렬하고 역동적인 느낌보다는 단조롭지 않으면서 화려하고 명랑한 느낌을 나타내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색조배색의 측면에서는, 명도, 채도 각 1단계씩의 차이가 나는 T11(30%), 채도차 1의 T01(13%), 명도차 1의 T10(1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외에 T22, T00, T02, T12, T03, 그리고 T13의 순으로 나타나 유사색조 배색이 가장 많고, 그다음 대조색조 배색, 동일색조 배색을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명도차가 나는 색조끼리의 배색은 13%인 반면 채도차나는 색조의 배색은 25%로 채도차가 나는 색조의 조화가 더 많았는데, 세부적으로 명도차2의 색조배색(T20)은 0.5%에 불과한 반면 채도차 2(T02)는 9%, 채도차3(T03)은 3%로 나타나 명도차보다는 채도차에 의한 색조조화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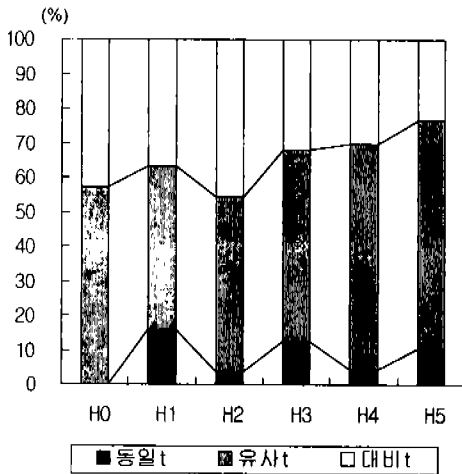
명도·채도 다 차이가 나는 색조조화는 전체의 51%로 명도, 또는 채도차만 나는 단순조화보다는 복합적인 차를 나타내는 색조와의 조화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명도·채도 각 1단계가 차이 나는 유사색조조화의 T11이 30%로 가장 높아 색조의 대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색상과 색조의 배색을 유사성을 갖는 배색유형별로 그룹화하여 각 배색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색상의 경우 동일배색(H0)에서 보색배색(H5)으로 갈수록 배색된 두 색상간에 색상의 대비가 커지는 관계를 이룬다. 색조의 경우에는 T00은 동일색조, T10·T01·T11은 유사색조, T20·T02·T03·T21·T12·T22·T13는 대조색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각 색조와 색상간 조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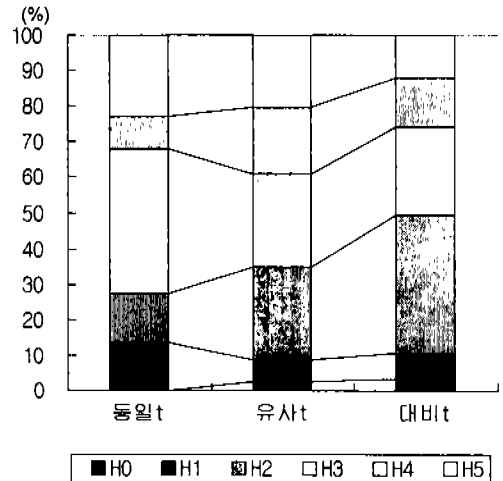
분석결과 [그림 7]과 같이, 색상의 측면에서 동일배

<표 2> 색상·색조에 따른 색동 배색 분석

| 색상 배색유형 | 색조 | 동일 | 명도, 채도차 | | | | | | | | | | 계 (%) |
|------------|----|------------|------------|------------|------------|-----------|----------|-------------|----------|-----------|------------|----------|----------|
| | | | T00 | T10 | T20 | T01 | T02 | T03 | T11 | T21 | T12 | T22 | |
| 동일 | H0 | 1 | | | | | | 2 | | | 4 | 1 | 8(4) |
| 유사 | H1 | 4 | 3 | | 4 | | 1 | 6 | | 4 | 4 | 3 | 29(14) |
| 부조화 | H2 | 1 | 4 | 1 | 2 | 5 | 2 | 15 | | 9 | 9 | 1 | 49(23) |
| 이색 | H3 | 13 | 8 | | 12 | 5 | 3 | 11 | 1 | 2 | 2 | | 57(27) |
| 근접보색 | H4 | | 9 | | 7 | 6 | 1 | 10 | | 1 | 3 | | 37(18) |
| 보색 | H5 | 2 | 4 | | 3 | 2 | | 18 | | | 1 | | 30(14) |
| 계 (%) | | 21 (10) | 28 (13) | 1 (0.5) | 28 (13) | 18 (9) | 7 (3) | 62 (30) | 1 (1) | 16 (8) | 23 (11) | 5 (2) | 210 |
| | | 21 (10) | 29 (13) | | 53 (25) | | | 107 (51) | | | | | |



[그림 7] 색상배색에 따른 색조배색 분포



[그림 8] 색조배색에 따른 색상배색 분포

색에서 보색배색으로 갈수록 유사색조배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보색배색유형(H4, H5)에서는 유사색조와의 배색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부조화색상 배색(H2)이나 이색조화배색(H3)의 경우에는 보색배색에 비하여 대조색조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로 색상환에서의 색상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조색조 비율이 높고 멀수록 유사색조배색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색조측면에서는 [그림 8]에서와 같이 동일색조의 경우 이색배색(H3)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보색배색(H5), 부조화배색(H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사색조배색에서도 H2, H3, H5 유형이 높게 나타나 색상차

가 많이 나는 색상과의 배색이 많았다. 한편 대조색조배색의 경우에는 H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H3에서 H5에 이르는 배색유형의 비율이 다른 색조배색유형에 비하여 다소 낮으며 특히 보색배색은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조적인 색상을 배색시키는 경우 색조를 유사하게 조절하여주고, 반대로 유사하거나 덜 대조적인 색상과의 배색시에는 색조의 차이를 다소 크게 하여줌으로써 조화로운 배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색동에서는 색조보다는 색상의 차이가 크며, 또한 색상의 차이가 많이 나는 배색을 하는 대신 색

조는 인접한 유사색조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통일감있는 배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통적 색채관이 중국의 사상체계에 뿌리를 두고있는 음양오행설을 토대로 정립되므로써 색채의 사용에 있어 관념적인 경향을 나타내 색동에 사용된 색채의 경우에도 사상적으로는 이와같은 음양오행설에 기반을 두고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위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작자의 감각이나 미의식이 내포된 감성적인 측면이 현대적인 색채조화 이론에도 부합되는 색채조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뛰어난 우리의 색채감성의 일면을 시사해주고 있다.

2) 색상에 따른 배색 분석

색상에 따른 배색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색동의 색상을 R에서 RP까지 먼셀 색상환을 10등분한 색상으로 구분하여 색상별 배색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RP, R과 Y, GY의 난색계 색상의 경우 부조화(H2), 이색 배색(H3)이 많고 YR은 동일배색(H0), 유사배색(H1)이 많아 색상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비효과가 높지않은 색상과 주로 배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이후의 한색계에서는 H4나 H5등 보색배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B, PB에서는 보색배색(H5)이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G와 BG는 H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중간·한색계 색상에서는 대비가 큰 보색색상조화를 주로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색상별 배색유형의 차이에서 볼 때 색동

은 차가우면서 쓸쓸하고 딱딱한 느낌을 줄수있는 한색계 색상간의 배색을 지양하고, 즐거움과 화려함의 느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난색계 색상들을 배색의 주조색으로 사용하며 한색계를 첨가하여 색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며 조화되도록 배색한 것을 알 수 있다.

3) 착용맥락별 배색

착용맥락별 배색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명절복에서의 배색은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였다. 이 색배색과 근접보색배색의 비율은10%로 전체경향이나 다른 복종에 비교하여 매우 높아 극단적인 보색배색은 아니지만 색상차가 많이나는 색상배색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색조배색에 있어서는 채도차 3의 경우가 명절복에서만 조사되었으며, 전체에 비해 대조적인 색조 배색유형의 비율은 35%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복은 보색배색의 비율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접보색과 보색배색의 비율이 전체의 42%로 다른 두 복종에 비해 대조적인 색상과 배색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채도차나는 배색이 30%로 무복에 사용된 색동은 대조되는 색상에 채도차 나는 색조와의 배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유사색조배색 유형이 총 60%로 색조의 차이는 적었다.

예복은 색상배색 측면에서는 H0, H1의 색상차가 적은 배색유형이 32%, 부조화배색의 비율이 31%로 다른 복종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색상차가 크지않은 배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배색면에서는 명도, 채도차나는 색조의 조화가 59%로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명도 채도 1단계차(T11)는 39%나 되었다. 전체에 비해 채도차나는 색조배색의 비율이 다소 낮았으며, 유사색조의 비율이 59%로 전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예복에서의 색동은 색상차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 인접색상에 유사한 색조를 갖는 색과 배색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예복의 경우 빨강과 노랑, 파랑¹¹⁾의 삼색을 중심으로 배색되었으며 특히 빨강과 노랑의 배색이 많고, 색조는 대부분 dp, dl등에서 중절적으로 조사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표 4> 각 색상별 배색 분석

| 배색 색상 | H0 | H1 | H2 | H3 | H4 | H5 | 계 |
|----------|----|----|----|----|----|----|-----|
| R | 1 | 8 | 16 | 17 | 9 | 2 | 53 |
| YR | 3 | 6 | 1 | 2 | 1 | 1 | 14 |
| Y | 1 | 8 | 14 | 14 | 4 | 4 | 45 |
| GY | 0 | 1 | 5 | 1 | 1 | 0 | 8 |
| G | 0 | 0 | 1 | 6 | 6 | 2 | 15 |
| BG | 0 | 0 | 0 | 0 | 1 | 0 | 1 |
| B | 0 | 0 | 1 | 8 | 6 | 11 | 26 |
| PB | 0 | 0 | 1 | 2 | 3 | 5 | 11 |
| P | 0 | 0 | 0 | 0 | 0 | 0 | 0 |
| RP | 2 | 5 | 5 | 0 | 2 | 2 | 16 |
| 계 | 7 | 28 | 44 | 50 | 33 | 27 | 189 |

11) 국립현대 미술관의 한국전통표준색상에 의하면 전통 색에서의 정색은 먼셀값으로 8.3PB 2.2/10.1로 KS의 구분으로는 보라면 파랑에 해당하며, 적색은 6.9R 3.4/11.4 노랑은 7.5Y 8.7/9.1, 그의 자색은 8.3RP 2.2/6.1, 홍색 2.8R 4.2/15.1, 벽색 2.6PB 4.9/9.8, 녹색 0.9G 3.5/3.9, 유허색 1.5Y 6.3/5.8 이다.

<표 5> 착용색택별 배색

| 부종별 | 색조 색상 | 동일 T00 | 명도, 채도차 | | | | | | | | | | 계 |
|-----|----------|-----------|---------|-----|-----|-----|-----|-----|-----|-----|-----|-----|-----|
| | | | T10 | T20 | T01 | T02 | T03 | T11 | T21 | T12 | T22 | T13 | |
| 명결복 | H0 | 1 | | | | | | | | | 3 | 1 | 5 |
| | H1 | 3 | 2 | | 3 | | 1 | 3 | | 2 | 3 | 1 | 18 |
| | H2 | 1 | 4 | | 2 | 2 | 2 | 8 | | 5 | 7 | | 31 |
| | H3 | 10 | 7 | | 6 | 3 | 3 | 10 | 1 | 2 | 2 | | 44 |
| | H4 | | 7 | | 5 | 5 | 1 | 10 | | 1 | 3 | | 32 |
| | H5 | | 2 | | 2 | 2 | | 8 | | | 1 | | 15 |
| | 계 | 15 | 22 | 0 | 18 | 12 | 7 | 39 | 1 | 10 | 19 | 2 | 145 |
| | 15 | 22 | | 37 | | | 71 | | | | | | |
| 무복 | H0 | | | | | | | | | 1 | 1 | | |
| | H1 | | | | | | | | | | 0 | | |
| | H2 | | | | | 1 | | | | 3 | 1 | | 5 |
| | H3 | 2 | | | 3 | | | | | | | | 5 |
| | H4 | | | | 2 | 1 | | | | | | | 3 |
| | H5 | | 2 | | | | | 7 | | | | | 9 |
| | 계 | 2 | 2 | | 5 | 2 | | 7 | | 3 | 2 | | 23 |
| | 2 | 2 | | 7 | | | 12 | | | | | | |
| 예복 | H0 | | | | | | 2 | | | | | | 2 |
| | H1 | 1 | 1 | | 1 | | 3 | | 2 | 1 | 2 | | 11 |
| | H2 | | | 1 | | 2 | 7 | | 1 | 1 | 1 | | 13 |
| | H3 | 1 | 1 | | 2 | 2 | 1 | | | | | | 7 |
| | H4 | | 2 | | | | | | | | | | 2 |
| | H5 | 2 | | | 1 | | 3 | | | | | | 6 |
| | 계 | 4 | 4 | 1 | 4 | 4 | | 16 | | 3 | 2 | 3 | 41 |
| | 4 | 5 | | 8 | | | 24 | | | | | | |

이상으로 색동의 색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색동에 사용된 색상은 주로 빨강, 주황, 노랑등 난색계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한색계에서는 보라편 파랑이 주로 사용되었고 보라계열과 검정은 색동의 색으로서 제외되었다. 색조는 주로 dl, dp동 중간 명도와 채도를 갖는 색감이 있는 진한 색들이 사용되었다. 배색에서, 색상은 유사한 색상보다는 색상차가 나는 대비되는 색상배색을 이루는 한편 색조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어 단조롭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통일감을 주는 배색을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색동배색을 응용한 현대 복식 디자인의 전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된 색동색채의 형식적 특성

에 기초하여 현대복식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배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색동배색을 CAD시뮬레이션으로 직물디자인으로써 복식에 적용시켜 색동을 응용한 복식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먼저 배색에 사용된 색상은 기본단위의 색상수를 5색으로 하되 동일한 색상배열이 단순히 반복되기보다는 기본 배열의 반복간에 다른 색상을 첨가시켜 더욱 다채로운 느낌을 나타내도록 변화를 주었다. 배열을 이루는 색상은 색상조사 결과에서 출현빈도가 높았던 노랑편 빨강, 노랑, 보라편 파랑, 보라편 빨강, 흰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여기에 연두와 주황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배열의 순서는 색동의 관념적인 색채사용에서 보여지는 음양오행사상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인접색간에 상생의 배열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또한 배열을 이루는



(a)



(b)



(c)

[그림 9] 색동배색을 응용한 복식디자인¹²⁾

각 색상의 색조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각 색조의 빈도 순과 색조배색관계에 의하여 색조를 조절하였다.

배색을 개발한 후 색동이 전통적으로 명절복이나 예복등에 많이 사용된 점에 의거하여 현대복식중 일상복 보다는 예복에 적용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의복스타일 디자인보다는 색동의 응용방법에 일차적 목적을 두었으므로 의복형태는 색동을 적용하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디자인을 잡지에서 선정하여 스캐닝한후 색동을 적용하는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였다. CAD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선정된 의복은 먼저 '97 봄/여름 파리 Haute Couture 콜렉션에 발표된 작품중 색동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진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CLC-10 칼라 스캐너로 스캐닝한후 개발한 색동을 의복에 Textile CAD softwear(Texpia)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므로써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색동을 응용하여 완성된 디자인중 세 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9-a]는 기본적인 색동의 색배열은 같게 유지하되 스커트 부분의 층마다 넓이를 달리하여 점층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림 9-b]는 색동이 일반적으로 세로 줄무늬로 많이 사용되던 것에

서 벗어나 가로 줄무늬로 변화를 주어 응용하므로써 인체실루엣에 따른 리듬감으로 경쾌한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 9-c]는 스커트부분은 세로줄무늬를 이루는 한편, 상의 부분은 사선으로 줄무늬를 이루도록 하여 스커트나 소매의 주름과 함께 역동적인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하였다.

IV. 결 론

우리 민족의 뛰어난 색채감성을 나타내므로써 한국적 이미지를 전달하여주는 색동은 키치로 통속화되거나 또는 양식화, 탈색동화를 이루면서 현대 디자인에 적용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자국의 정체성을 지닌 디자인 개발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색동은 높은 한국적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높은 활용가치를 지니는 디자인 소재 중 하나이므로 더 적극적인 응용과 개발이 필요시된다.

본 연구는 색동에 표현된 여러 조형적인 측면중 특히 색채의 특성을 고찰하여 한국적 디자인의 현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물자료를 대상으로 전통복식에 사용된 색동의 색채를 측색기를 사용하여 먼셀 HV/C값으로 측정하여 분석하고, 색채 및 배색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배색을 개발하여 복식디

12) Collezioni-Haute Couture, N.57, Cristian Lacroix(p. 107), Nina Ricci(p. 267), Collezioni-Haute Couture, N.54, Cristian Lacroix(p. 200)

자인에 응용하므로써 한국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디자인 개발방법의 하나를 제시하였다. 색동색채의 분석결과, 색동의 색상은 빨강, 노랑 등 난색계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보라면 파랑 등의 한색계 색상과 대비를 이루어 화려하면서도 활기찬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는 채도가 비교적 높고 명도는 중간정도인 색조들의 사용이 많았다. 색동의 색배열은 주로 색상에서는 대비되는 색상배색이 사용되었으며 색조에서는 인접 색조에 의한 색배열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색채 사용의 특성으로 색동은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이미지를 전달한다.

본 연구는 음양오행이론에 근거해 색동 색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비하여 표준화된 색채전달도구에 의하여 분석하므로써 색동의 색채를 현대적으로 응용하기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색채자료를 구축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색동의 여러 조형요소중 색채에 국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에 의한 배색을 개발하여 복식디자인에 있어서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색동의 다른 조형 요소에 대한 분석과 이를 활용한 보다 폭넓은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금기숙, 「조선복식미술」서울: 열화당, 1995
 김명한, 「미술사전」, 서울: 도서출판 승례문, 1991.
 김원용, 「벽화-한국미술전집4」, 서울: 동화출판공사, 1974.
 김지언, 한국인의 녹색상징의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박상의, 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박상호, 「색채계획-건축·인테리어의 색채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효성, 1993.
 조희래, 김영인, 색동을 응용한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 (1), 한국의류학회지, 20(5), 1996.
 채수호, 국제합공사의 CIP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제 2 차 시안-」, 국립현대미술관, 1992.
 「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 1992.
 小林重順, 「Color image scale」, 東京: 集談社, 1990.
 Collezioni-Haute Couture, N.54
 Collezioni-Haute Couture, N.57